

## 설계경기 | Competition

### 녹동신항연안여객터미널 신축공사

Nok-dong Ferry Terminal

당선작 / 이순미 정희원 + 정명환 정희원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 디에이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907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항만시설보호구역
주 용 도	종합여객시설
대지면적	8,489.79㎡
건축면적	2,122.68㎡
연 면 적	2,417.98㎡
건 폐 율	25.00%
용 적 륜	28.48%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조
규 모	지상 2층
외장 마감	컬러스텐레스패널, 라임스톤, 합성목재, THK24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김종국

Eco + Culture + Community =  
Eco-Culture Community  
complex

계획의 목적인 해상관광 및 여객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종합 친수 공간,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상징성, 조형성 및 예술성을 갖춘 공간을 계획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공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획에 앞서 Eco, Culture, Community라는 키워드를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Eco(친환경)를 통해서는 '사람은 자연이고 자연은 사람을 키운다'는 자연주의, 인본주의를 건축물에 유입시켰으며, Culture(문화)라는 키워드로 인해서는 비워진 공간과 행위, 행위가 문화가 되는 공간에 지역인 Landmark 및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업, 지역문화를 수용하는 공간으로 재창조가 가능하게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다. Community(소통)이라는 키워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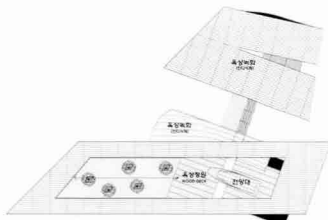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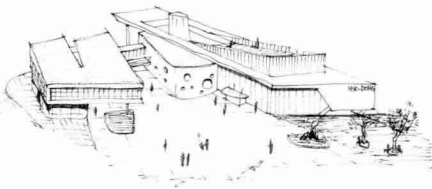
통해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위한 섬과 육지가 연결되는 Blue, Network, Hub city를 형성하였다.

배치에 있어서는 주변환경을 고려한 채움과 비움의 관계를 설정하여 주출입구 - 비봉광장 - 임시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Open Space의 Line을 계획하였으며, 특히 비봉광장에서 사람을 안전하게 품는 형태의 포용의 개념을 넣었으며, 대합실동과 임대동의 분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분리를 통하여 부지 맥락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치 건축물의 활용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내부 공간은 Eco - Culture Space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생태 문화공간, 휴게와 소공연장을 마련하는 등 주변환경을 적극 유입하는 공간들을 구성하였으며, 일반 시민들과 호흡하는 건물의 성격을 고려, 다양한 전이공간과 응용공간들을 계획하였다. 평상시 섬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노인들을 위하여 부지내 단차이를 없애는 등 여러 편의시설을 계획하였다. 내 외부공간의 관계성을 고려한 단위실의 비움과 채



움, 높음과 낮음의 조화를 꾀하였으며, 독립된 대합실동의 대공간 계획으로 개방감을 부여하였고 바다를 자유로이 관망할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실의 기능을 고려한 열림과 닫힘의 조화를 통하여 외부공간의 연속성을 내부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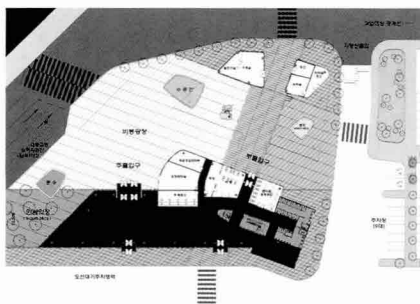
여객터미널 기능의 효율성 증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수직성 공간구성을 통해 관련실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도록 하였다. 내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에는 Eco-Plat 개념을 도입, Lawnhill 잔디언덕과 옥상 잔디녹화의 우수한 단열성능을 접목하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글:이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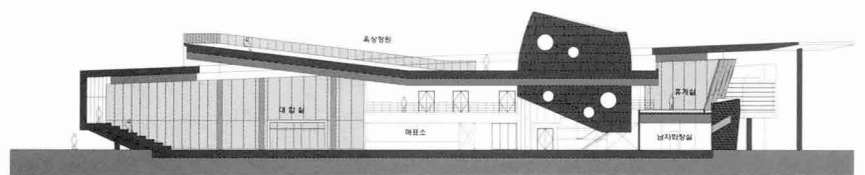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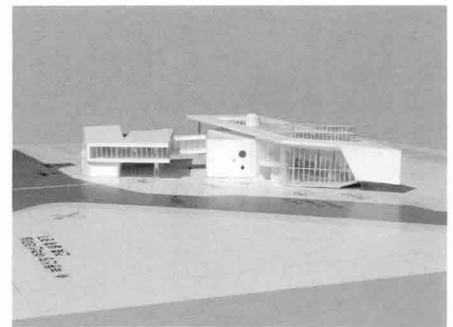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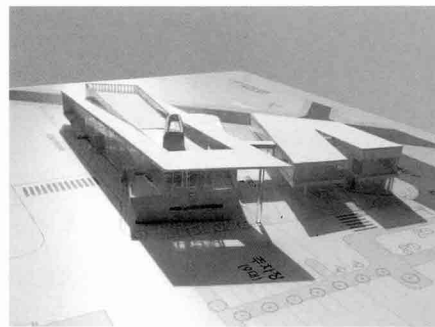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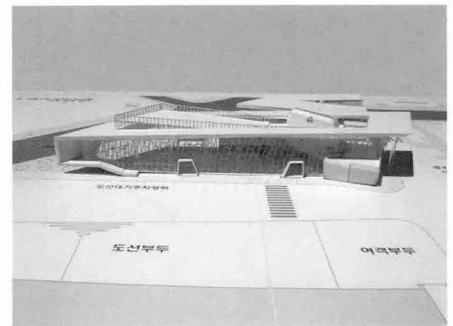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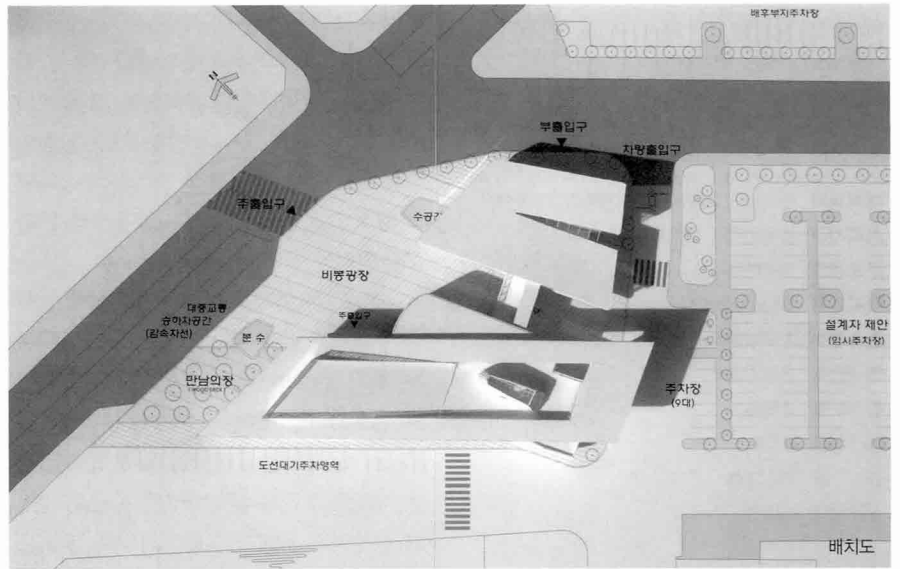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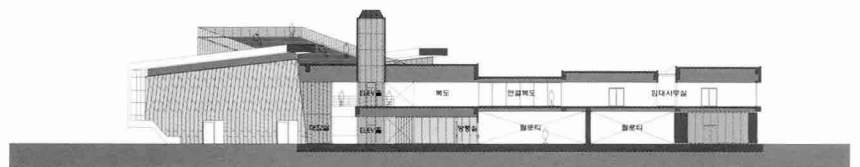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주단면도



우측면도

## 녹동신항연안여객터미널 신축공사 Nok-dong Ferry Terminal

우수작 / 정기호 정해원  
(가산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3907번지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항만시설보호구역  
주요용도 종합여객시설  
대지면적 34,431.20㎡  
건축면적 1,578.63㎡  
연면적 2,674.33㎡  
건폐율 4.58%  
용적률 7.77%  
규모 지상 2층  
설계담당 임효언

천혜의 해양자원과 해양관련 국가산업시설을 보유한 전남 여수에서 해양을 주제로 하는 세계 인정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그 주변 개최도시와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이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터미널’은 언제나 떠남과 돌아옴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고, 일상과 비일상이 교차하는, 혹은 낯선 미지를 동경해 마지않는 이들로 들쭉거리는 곳이다. 여기서 우리는 ‘문(Gate)’의 의미를 발견한다. 낯선 집에 도착한 이들은 그 집의 문을 열기를 망설이지만, 그 망설임의 뒤에는 호기심이 가득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익숙한 문고리를 잡는 이들에게는 그 문 뒤에 새로운 오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준다. 녹동항은 ‘바다’라는 미래를 향하는 문이다. 이 문을 열면 대양이 열리고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 오는 이들 중에는 일상의 새로움을 바라는 무수

한 이들이 있을 것이고, 미지를 동경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새로 계획된 녹동항은 도심의 일상을 연결하고, 미래의 바다를 열어가는 문이 될 것이다.

여기서 건축은 시작된다.



